MMCA SEOUL EXHIBITION GUID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DO HO SUH

서도호 : 기억의 집을 걷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 Seoul
3,4,5 전시실 · 서울박스 · MMCA스튜디오
Gallery 3,4,5,
Seoul Box,
MMCA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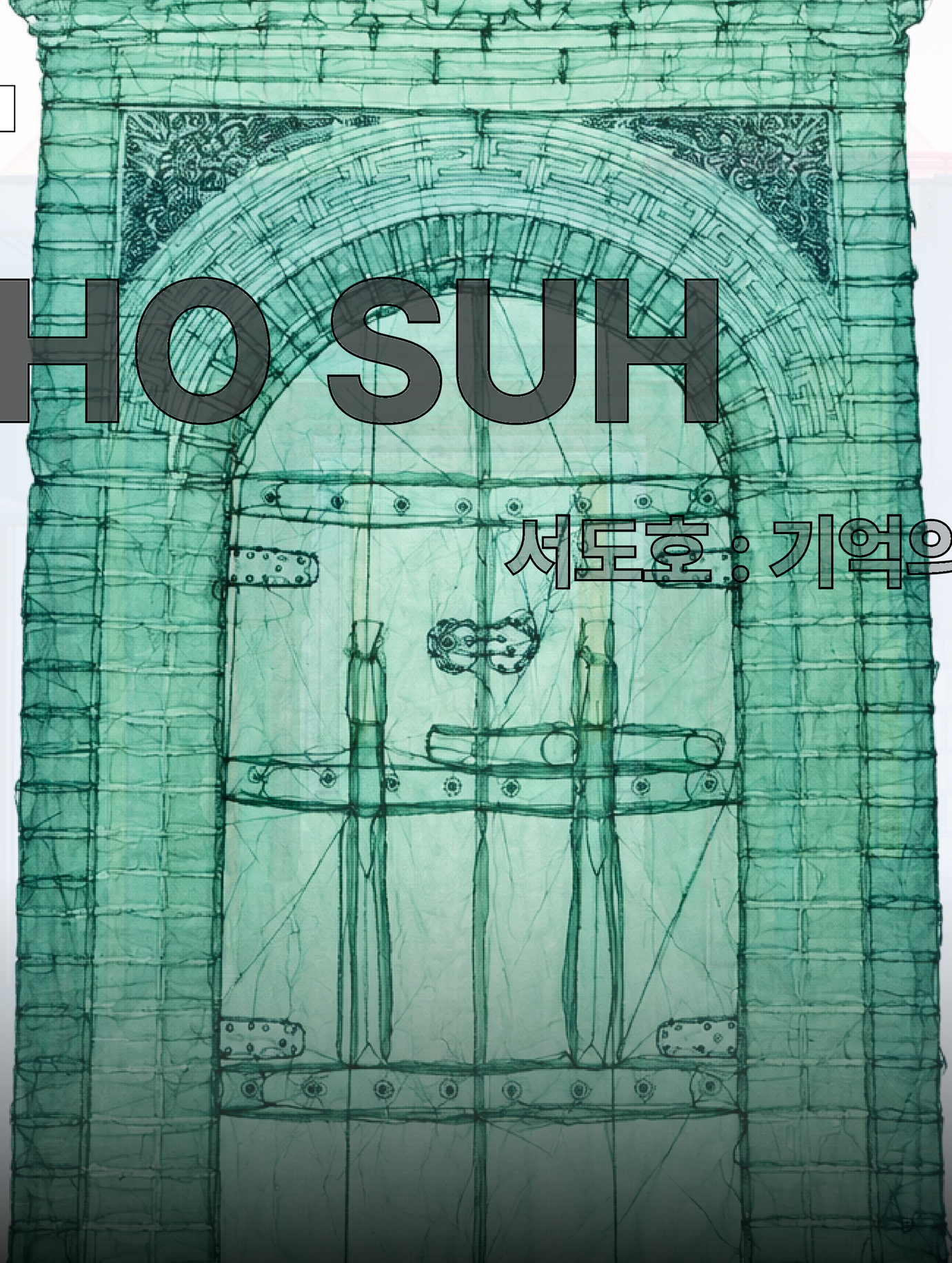
2026.8.27 - 2027.2.9
www.mmcamgo.kr

MMCA SEOUL EXHIBITION GUID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DO HO SUH

서도호 : 기억의 집을 걷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 Seoul
3,4,5 전시실 · 서울박스 · MMCA스튜디오
Gallery 3,4,5,
Seoul Box,
MMCA Studio

2026.8.27 - 2027.2.9
www.mmcamgo.kr

MMCA SEOUL EXHIBITION GUID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문을 지나면,
다른 기억이 시작됩니다.

MMCA SEOUL EXHIBITION GUID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지나온 집들은,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MMCA SEOUL EXHIBITION GUID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집은 떠나온 장소이자, 몸에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집을 짓고, 기억을 옮기는 사람.

01 — THE ARTIST .

떠나온 집과
살아가는 집 사이.

서도호 / Do Ho Suh



1962년 서울 출생

설치 · 조각 · 드로잉 · 영상

서도호는 자신이 살았던 집과 일상의 공간을 통해 기억과 정체성을 탐구합니다. 한국에서 성장한 뒤 미국과 영국 등 여러 장소에서 살아온 경험은, 집을 한곳에 고정된 건물 너머로 바라보게 합니다.

천과 실로 옮긴 문과 복도, 종이로 감싸 문질러 기록한 벽. 그의 집은 개인의 삶이 쌓인 공간이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장소입니다. 방과 방 사이의 문턱은 서로 다른 기억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 MMCA 큐레이터 전시투어　　작가·기획 더 읽기 ↘

어느 곳에 머물렀는지보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서로 다른 도시의 일상이,
하나의 집에 모입니다.

<완벽한집>, 2024

런던, 호성, 뉴욕, 베를린, 프로비던스, 서울

작가가 살았던 집의 손잡이와 스위치, 콘센트가 반투명한 천으로 옮겨집니다.

여러 거주지의 생활 요소를 모아, 한 사람의 건축적 자서전을 만듭니다.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그 안으로 한걸음 더

집을 이루는 것은,
익숙한 손길입니다.

MMCA SEOUL EXHIBITION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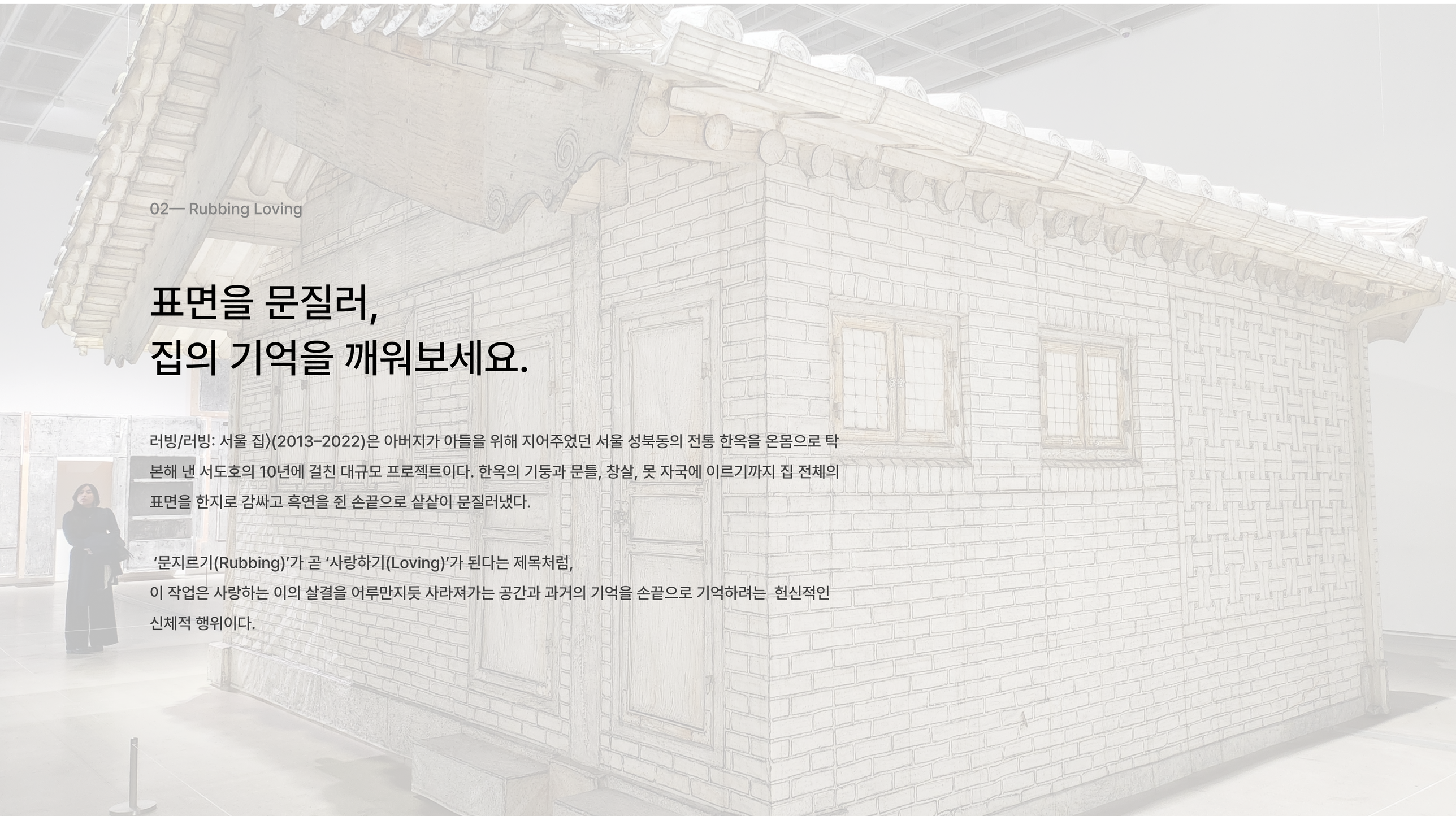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벽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들이 보입니다.

손이 닿았던 표면에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02— Rubbing Lo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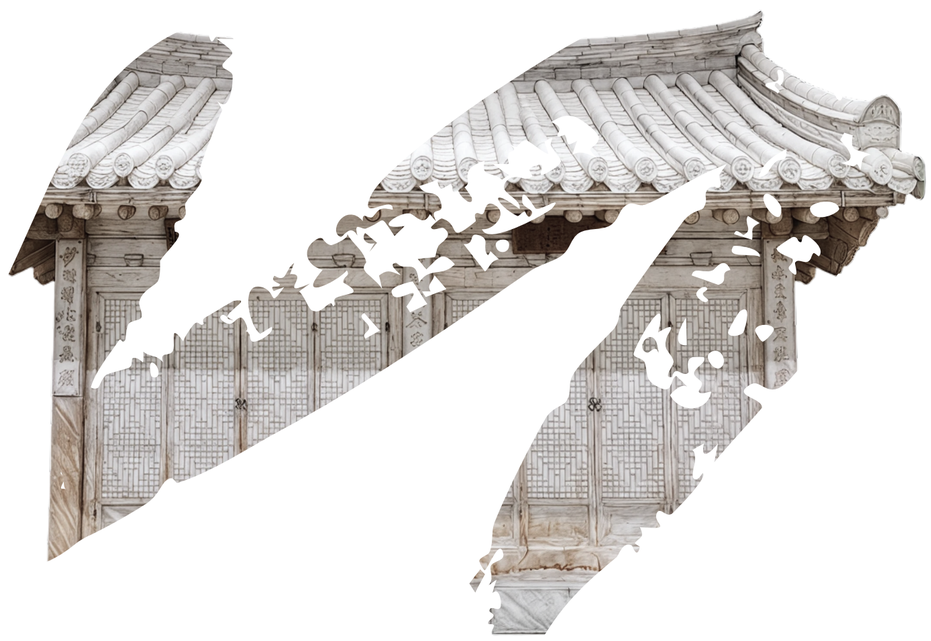
표면을 문질러,
집의 기억을 깨워보세요.

러빙/러빙: 서울 집)(2013–2022)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지어주었던 서울 성북동의 전통 한옥을 온몸으로 탁본해 낸 서도호의 10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한옥의 기둥과 문틀, 창살, 못 자국에 이르기까지 집 전체의 표면을 한지로 감싸고 흑연을 쥔 손끝으로 샅샅이 문질러냈다.

‘문지르기(Rubbing)’가 곧 ‘사랑하기(Loving)’가 된다는 제목처럼,
이 작업은 사랑하는 이의 살결을 어루만지듯 사라져가는 공간과 과거의 기억을 손끝으로 기억하려는 헌신적인 신체적 행위이다.

표면을 문질러,

집의 기억을 깨워보세요.



Nest/s

집/들

04 — Nest/s

기억은 머물지 않고,
다음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2024 폴리에스터 천, 스테인리스 스틸

여러 도시에서 거주했던 집의 복도와 문턱, 방과 방 사이의 공간이 실제 크기의 반투명한 건축으로 연결됩니다.
현실에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장소들이 하나의 연속된 공간을 이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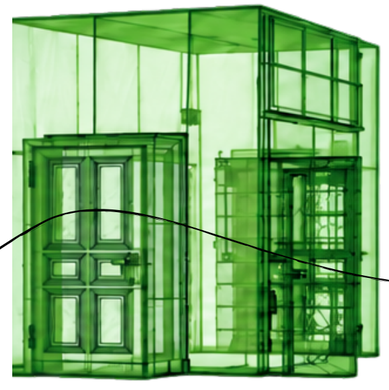
얇은 천은 공간을 막으면서도 그 너머를 보여 줍니다. 이 재구성에서는 겹치는 색과 원근을 따라 이동하며,
몸에 남은 통로의 폭과 지나온 장소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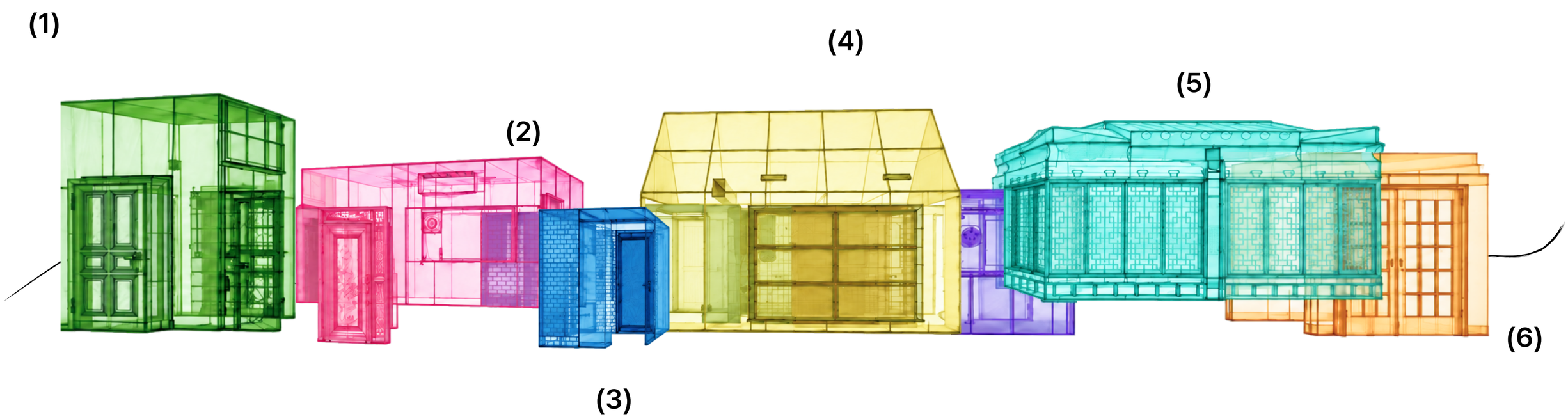


기억은 한 가닥의 실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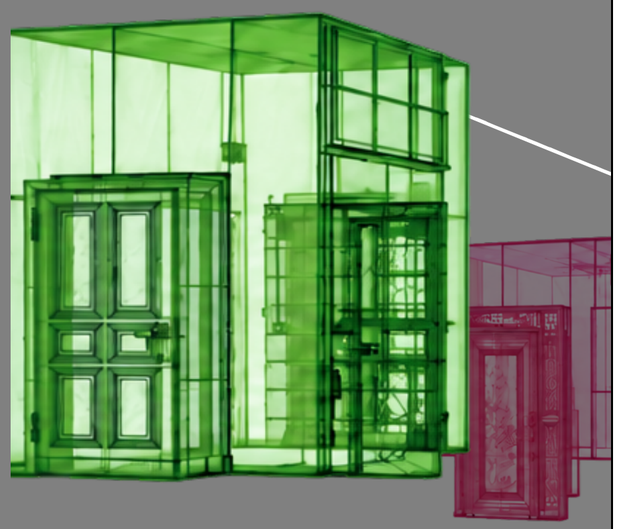
스크롤을 내려 공간을 잇고, 각 공간을 눌러 관련 작품을 만나보세요..

(1)




(1)
(2)
(3)
(4)
(5)
(6)

(1)



My Home/s

〈나의 집/들〉은 서도호 작가가 수제 종이 섬유 속에 오색의 실을 매립시키는 독창적인 '실 드로잉' 기법으로 유년 시절의 성북동 한옥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화면 상단에 자리 잡은 기와지붕과 창살의 정교한 구조체 아래로, 수천 가닥의 실이 마치 거대한 폭포나 빛줄기처럼 수직으로 쏟아져 내리며 장엄한 건축적 긴장감을 자아낸다.

실 기둥의 맨 아래에는 작고 고독한 인간의 형상이 홀로 서 있다. 허공에 뜬 거대한 한옥은 개인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과거의 기억이자 가족과 문화의 거대한 뿌리이며, 아래로 쏟아지는 무수한 실선들은 그 집과 인간을 탯줄처럼 단단하게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시간의 무게를 상징한다. 연약한 실 한 올이 모여 거대한 유산을 떠받치듯, 집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시적으로 웅변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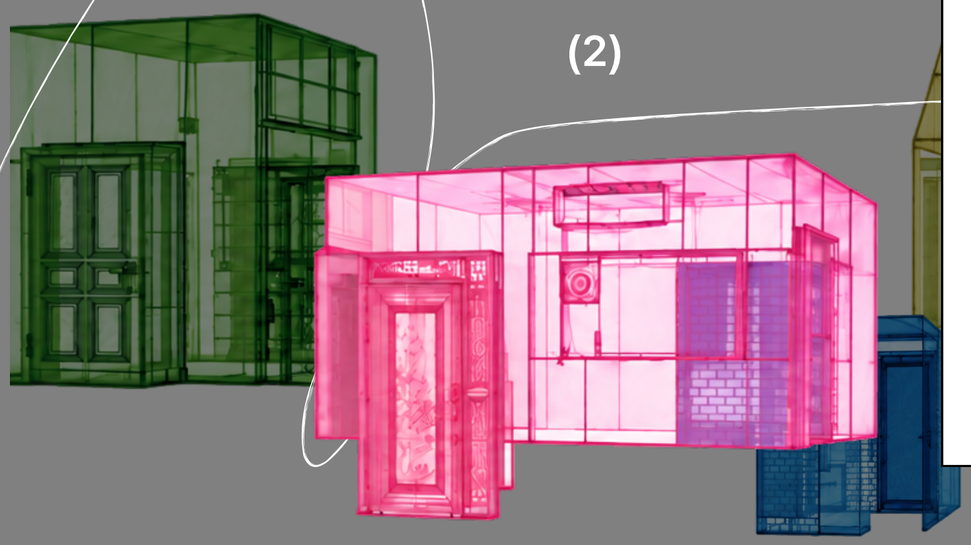


〈나의 집/들〉, 2014,
수제 면 종이에 실 드로잉, 274.5 × 147.5 cm

(5)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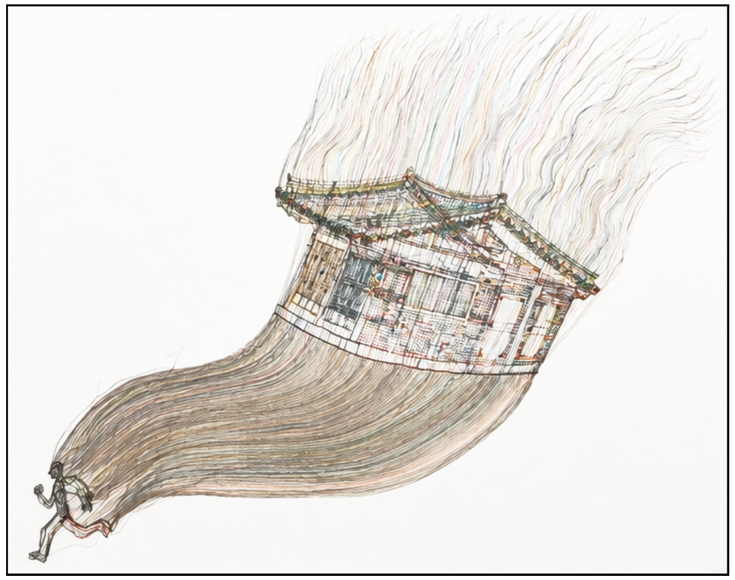


(3)

Haunting Home

〈쫓아오는 집〉은 젖은 닥종이 펄프 속에 실을 직접 매립하여 굳혀내는 서도호 특유의 '실 드로잉(Thread Drawing)' 작업이다. 종이 표면에 단순히 선을 그린 것이 아니라 섬유 조직 깊숙이 파고든 실의 궤적은, 마치 몸에 새겨진 흉터처럼 납작한 평면 위에 촉각적인 부피감과 깊은 시간의 흔적을 만들어낸다.

작가가 오랜 세월 여러 도시를 떠돌며 살아가는 동안, 물리적으로 두고 떠나온 과거의 집과 가족과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온다. 가볍고 끊어질 듯한 실들이 모여 쉽게 해체되지 않는 단단한 집의 윤곽을 이루듯, 작가는 어디로 이동하든 내면을 따라다니는 '기억 속의 집'이야말로 한 인간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실체임을 애틋하고도 담담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쫓아오는 집〉, 2023,
수제 종이에 실, 214 × 153 cm

Kar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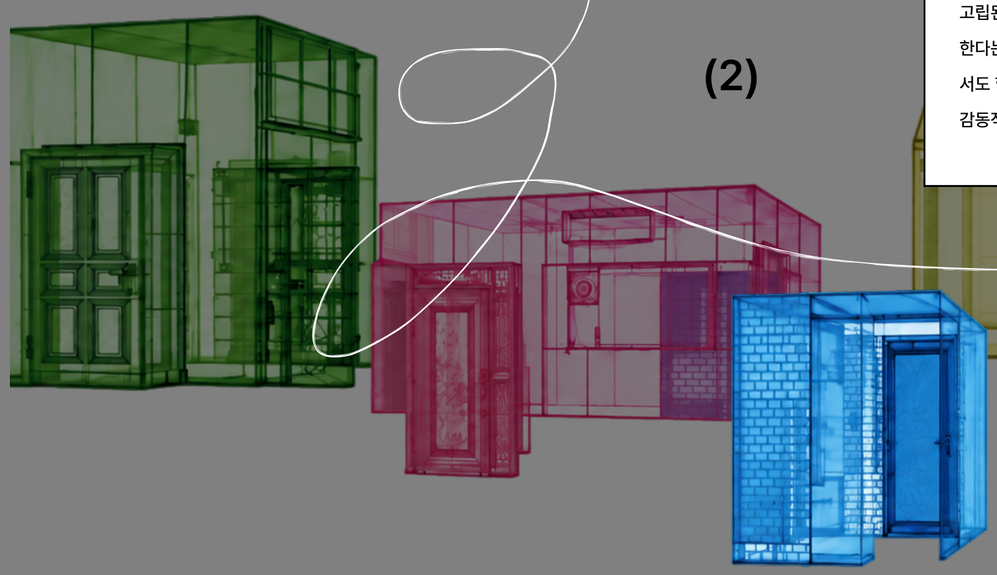
〈카르마〉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한 올의 '실'을 통해 인간의 삶과 인연, 그리고 업보(Karma)의 거대한 굴레를 시각화한 서도호의 대표적인 실 드로잉 작품이다. 물에 젖은 수제 닥종이 펄프 속에 오색의 실을 매립시켜 굳혀낸 독창적인 기법은, 마치 피부에 아로새겨진 흉터처럼 납작한 2D 평면 위에 깊은 촉각적 질감과 입체적인 시간의 깊이를 부여한다.

화면 속에서 수많은 인간의 측면 실루엣은 나란히 겹치고 포개지며 위를 향해 불꽃이나 빽빽한 숲처럼 뻗어 올라간다. 한 사람의 생(生)을 이루는 실선이 타인의 실과 엉켜 도저히 풀 수 없는 복잡한 군상을 이루듯, '나'라는 존재는 홀로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무수한 타인의 인연과 과거의 궤적이 얽혀 비로소 성립한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인과의 그물망 속에서도 힘차게 약동하며 걸어가는 인간들의 실루엣은 삶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감동적으로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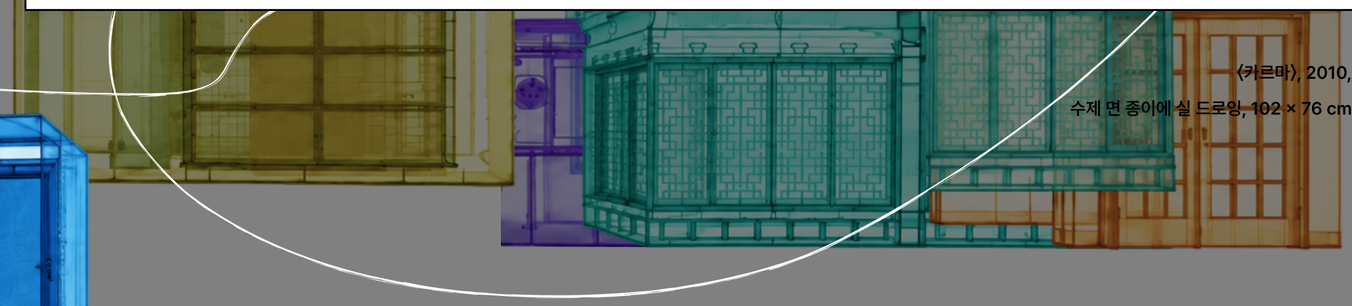


〈카르마〉, 2010,
수제 면 종이에 실 드로잉, 102 × 76 cm

(1)



(2)



(3)

Karma

〈카르마〉는 서도호의 대표적인 동명 조각 작품의 개념을 평면 위에 옮겨온 연작으로, 인간의 실존이 과거의 역사와 앞선 세대의 어깨 위에 얹혀 있음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화면 속에서 전진하는 한 인간의 어깨 위로 또 다른 인간이, 그 위에 또 다른 인간이 끝없이 목마를 타며 탑처럼 솟아오른다. 위에 탄 이는 바로 아래 사람의 두 눈을 손으로 가린 채,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다채로운 색상의 스펙트럼으로 뻗어 올라간 인간 기둥들은 우리가 짊어진 인과와 가계(Lineage), 그리고 집단적 기억의 무게를 상징한다. 우리는 앞선 자들의 희생과 흔적을 딛고 서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 채 불안정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과거가 현재를 짓누르는 묵직한 무게감과, 그 연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숙명을 강렬한 시각적 리듬으로 웅변한다.



〈카르마〉, 2010,
종이에 에칭 및 잉크(또는 혼합 매체), 100 × 72 cm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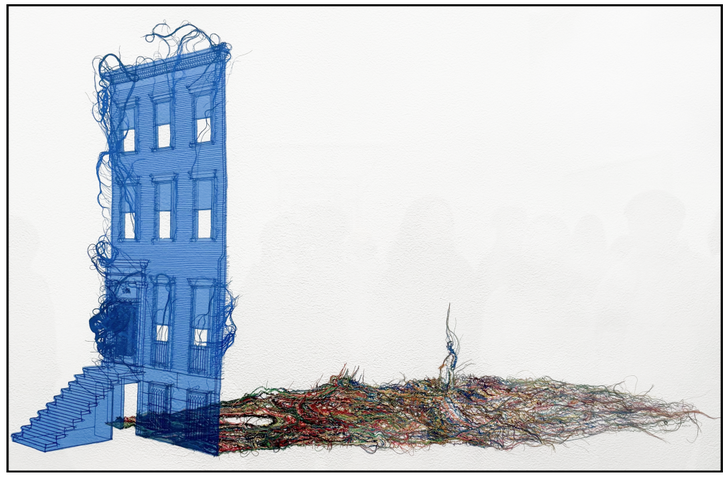
(3)

(1)

Blueprint

〈청사진〉(2014)은 차갑고 이성적인 건축 설계도면(Blueprint)의 푸른빛을 띤 뉴욕 브라운스톤 아파트의 외벽과, 그곳에서 살아 숨 쉬었던 삶의 내밀한 기억을 '실 드로잉'으로 대비시킨 작업이다. 화면 좌측에 정밀하게 직조된 3층 타운하우스의 파사드는 작가가 타국에서 마주했던 견고하고 이질적인 도시의 물리적 건축 틀을 상징한다.

그러나 엄격한 건축의 경계를 뚫고 나온 수많은 오색의 실들은 마치 건물이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나 융단처럼 바닥을 향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내린다. 그 뒤엉킨 실의 바다 한가운데에는 왜소한 인간의 형상이 홀로 서 있다. 정형화된 건물 너머로 흘러나온 이 실타래들은 그 공간을 거쳐 간 한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기억, 타인과의 인연이 빚어낸 심리적 궤적이며, 물리적인 집보다 그 안에서 얽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훨씬 더 무겁고 입체적임을 보여준다.



〈청사진〉, 2014,
수제 면 종이에 실 드로잉, 147.5 × 274.5 cm

(3)

(5)

MMCA SEOUL EXHIBITION GUID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WELCOME HOME, AGAIN

01 / IN THE MUSEUM

공간을 따라 걷기.

브로슈어에 안내된 실제 전시장 동선입니다.
웹사이트의 여섯 장면과는 구분됩니다.

B1F
3
3전시실

→

B1F
4
4전시실

→

B1F
5
5전시실

→

2F
STUDIO
MMCA스튜디오

서울박스
전시가 펼쳐지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브로슈어의 1F·B1F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며, 위 화살표 동선에 임의의 관람 순서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접근
MMCA스튜디오는 2층입니다. 이동 약자를 위한 동선은 1층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02 / BEFORE YOU GO

듣고, 읽고,
천천히 둘러보기.

작품 곁에서 들을 수 있는 공식 해설과
전시의 지도를 함께 준비하세요.

01 / AUDIO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
MMCA 공식 웹 오디오해설

02 / AUDIO
English audio guide ↗
MMCA official web audio guide

03 / PDF
전시 브로슈어 ↓
작품 소개와 층별 관람 지도 내려받기

THE ESSENTIALS

관람 안내

장소 LOCATION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3·4·5전시실 · 서울박스 · MMCA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시간 HOURS

10:00–18:00
월·화·목·금·일

10:00–21:00
수·토 야간개장

요금 ADMISSION

8,000 원
개별 관람권

무료: 대학생 · 만 24세 이하 · 만 65세 이상
수·토 18:00–21:00 야간개장 무료

무료 관람의 증빙 요건, 특별 휴관일 및 입장 마감 시간은 방문 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최신 공식 안내 확인 ↗